



2면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 조성 맞춘

#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23년 9월 26일 화요일 (음 8월 12일) 제3355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25일 전북테크노파크에서 열린 국가첨단전략산업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전북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추진단 출범식에 김관영 도지사와 국주영은 전북도의회 의장, 김중훈 전북도 경제부지사,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 양오봉 전북대학교 총장 등 참석자들이 산학연관 얼라이언스 출범 선포 세레모니를 하고 있다.

## 삼성, 고창 신활력산단에 대규모 첨단물류센터 조성

도·고창군과 협약... 3000억 투자·500여명 고용 창출

삼성전자가 고창 신활력산업단에 3000억원을 투자해 호남권에 대규모 물류센터를 조성한다. 전북도와 고창군은 이 같은 내용의 투자협약을 삼성전자와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관련사진 9면)

이번 투자는 전북도에 삼성이 대규모 사업장을 구축한 최초 사례이자 민선8기 들어 새만금 외 지역에 2000억원 이상을 투자한 첫 대규모(관광 제외) 투자사례이다.

협약식에는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해 심덕섭 고창군수, 윤준병 국회의원, 윤여봉 경제통상진흥원장, 삼성전자(주) 김동욱 부사장을 포함한 임원들이 참석했다.

삼성전자는 경기도 수원시에 본사를 두고 반도체와 전자제품을 제조하는 초일류기업으로 남부지역의 원활한 물류·유통을 위해 호남권에 대규모 물류센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번 투자협약에 따라 삼성전자는 고창신활력산업단지 5만4000여평을 매입해 자동차 기술이 집적된 첨단 물류센터를 건립한다.

물류센터는 연내 건축착공 및 인허가 승인을 위한 사전절차를 진행하고 2024년에 착공, 2026년 내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한다.

삼성전자는 물류센터 조성을 위해 총 3,000억원을 투자하고 500여명의 직·간접적 고용 창출을 계획하고 있다.

김관영 도지사는 "대기업인 삼성전자의 전북 투자를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전북에서 기업활동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고 삼성전자가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심덕섭 군수는 "삼성전자가 고창군에 첫 대규모 투자를 해 줘서 앞으로 지역경제 발전과 활성화에 큰 기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투자협약을 신호탄으로 고창신활력산업단에 첨단ESG기업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투자협약은 최근 집중 기업유치 중인 새만금 외 지역에서 전해지는 대규모 투자로 시·군의 지리적 특성, 차별화된 인센티브 등을 활용한 성공적인 투자유치에 대한 가능성을 제시했다.

전북도는 앞으로 시·군별 감점과 특성화 전략을 바탕으로 14개 시·군에 골고루 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김재훈 기자·고창=김영식기자

## 이차전지 산업 육성 가속 페달 밟다

전북도, 경제부지사 단장으로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추진단' 출범  
추진단 내 기업·연구지원 등 3개 분과 운영... 산업 생태계 기반 조성 지원

전북도가 도내 산·학·연·관과 함께 힘을 모아 전북 이차전지 산업의 생태계 기반을 조성해 나가기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도는 지난 22일 산업부가 주관한 이차전지 특화단지 범부처 지원 협의체 출범에 이어 25일 본격적인 특화단지 운영과 지원을 위한 전북 자체 추진단 출범식을 갖고 이차전지 산업 육성 실천을 다짐했다.

이날 전북테크노파크에서 열린 출범식에는 김관영 도지사, 전라북도의회 국주영은 의장, 새만금개발청 김경안 청장, 군산시 강임준 시장, 도내 7개 대학 총장, 전북테크노파크 이규택 원장,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전북분원장, 한국전자기술연구원(KETI) 전북분부장, IS-엘앤에프 배터리솔루션·성일하이텍 대표이사, 이파컴텍, 대주전자재료 기업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특화단지 추진단 대표 위촉장 수여, 전북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발전전략 발표, IS-엘앤에프 배터리솔루션 정성훈 부문장과 성일하이텍 이강명 대표이사의 투자계획 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전북도와 전북테크노파크는 이날 이차전지 특화단지 육성전략을 발표하며 앞으로 이차전지를 중심으로 산업 대전환을 이뤄내고자 각오를 다졌고, 도내 이차전지 선도기업인 IS-엘앤에프 배터리솔루션과 성일하이텍은 투자계획을 내놓으며 전북의 국가첨단 전략산업을 주도하고 발전시켜 이차전지 산업을 함께 육성하는데 전력투구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했다.

도는 전북 이차전지 산업 생태계 기반 조성을 위해 전북도 김중훈 경제부지사를 단장으로 도와 새만금개발청, 군산시, 연구기관, 기업, 대학 등 산·학·연·관이 참여하는 추진단을 구성했으며, 추진단은 앞으로 특화단지 육성계획 수립과 성과 관리, 이차전지 산업 육성의 지원 사항 등 중요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추진단 내 제도지원, 기업·연구지원, 인력양성 3개 분과를 뒀 △투자·인허가 신속 지원 △산단 인프라 개선 지원 △초격차 연구개발(R&D) 기술지원 △연구개발(R&D) 핵심 인프라 구축 △전문인력 양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며 실무 역할을 수행할 사무국은 전북테크노파크 내에 설치한다.

또한 도내 40여 개 이차전지 기업들은 협업체를 구성해 이차전지 산업 발전과 전후방 연계 사업을 총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전북분원 등 연구기관은 초격차 연구개발(R&D)과 5대 핵심 상용화 센터 구축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기로 했으며, 전북대학교 등 도내 대학은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고, 기업들은 핵심 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에 힘쓰기로 했다. 도의회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원 특별위원회를 필두로 지역 정치권도 지원 사격에 나서기로 했다.

도는 향후 새만금개발청, 군산시와 긴

밀한 공조 체계를 유지하며 이차전지 관련 기업들이 새만금 산단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국가예산 확보를 통한 산단 기반 및 정주여건 개선 방안 마련 등 이차전지 산업을 견인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행사에는 지난 6월 1일 국회에서 개최된 결의대회에서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에 뜻을 모았던 도내 대학생들도 함께해 의미를 더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500만 전북인의 열정과 노력으로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 단지를 조성하게 됐다. 앞으로 정부와 협력해 국가첨단전략산업인 이차전지 산업을 전북이 주도해 발전시키겠다"며 "새만금 산업단지를 기반으로 전북이 대한민국 이차전지 산업을 선도할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산·학·연·관이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2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개최된 산업부 특화단지 범부처 협의체에 참석한 김중훈 전북도 경제부지사는 간담회에서 새만금 특화 분야인 광물 재활용 분야 등의 연구개발 지원과 센터구축 국비 지원, 산단 전력과 폐수처리시설 증설, 새만금 4대 핵심 기반시설 확충 예산의 증액을 강력 건의했다.

/김재훈 기자

## 국회 행안위, 내달 24일 전북도 국정감사

새만금 잼버리 파행·SOC 예산 삭감 논란 등 여야 공방 예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전북도에 대한 국정감사가 오는 10월 24일 진행된다.

25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도에 대한 국정감사를 오는 10월 24일 전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진행하기로 의결했다.

전북도 국감에는 감사 1반이 전북으로 내려온다. 김교흥 행안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감사반장을 필두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문진석·이영석·임호선·천준호, 국민의힘 김기현·김웅·정우택·전봉민·조은희 의원 등 각각 5명, 무소속 이성만 의원 등 총 11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국정감사에는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에 관한 질의와 새만

금 SOC 예산 삭감 등과 관련된 질의가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전북도에 이와 관련한 다수의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새만금 잼버리 파행과 SOC 예산 삭감 논란은 최근까지 정치권의 핫한 이슈로 자리잡으면서 이날 격렬한 공방전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통상 전북에서의 국정감사는 오전 전북도를 마친 뒤 오후 전북경찰청에 대한 국감이 진행된다.

하지만, 행안위는 오후 감사일정을 전북도 감사를 마친 뒤로 정해 설정을 예고한 상태다.

/김재훈 기자

축! 전주매일 창간

# 시민과 소통하고 함께하는 정읍시의회

정읍시의회  
www.jcc.or.kr